

한국석유공사 국제공동비축유 우선구매권 행사 관련 감사 결과

1. 감사 개요

□ 감사 배경

- 원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, 한국석유공사의 비상시 우선구매권 행사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소관과(석유산업과) 감사 요청에 따른 감사 실시

□ 감사 기간 / 처분요구일 : '26. 3. 26. ~ 4. 3.(7일간) / '26. 7. 15.

2. 감사 결과

- (우선구매권 관련 규정 위반사항 없음) 우선구매권 행사는 석유공사-쿠웨이트 국영석유사(KPC) 간 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에 기반한 것으로, 규정 위반은 없음
- (우선구매권 행사 지연)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기상황에서 우선구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된 것을 인지하고도, 원유 수급관리 책임기관(석유공사) 및 관리기관(산업부)으로서 적극적 대응 미흡으로 우선구매권 행사가 지연되어 일부 원유(90만 배럴)가 국외로 반출되는 결과 초래
 - 또한, 우선구매권 행사 전, 석유공사는 우선구매권 행사 지연 시 국외 반출 우려 등에 대한 검토(보고)를 미실시했고, 산업부도 우선구매권 즉시 행사에 대해 석유공사에 지시하거나 내부 관리자에게 보고되지 않았음
- (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미흡)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조직개편('25.10.) 이후 변경된 조직 명칭 미반영 등 재난 매뉴얼 현행화 미실시, 「국가자원안보특별법」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하나, 감사 당시까지 작성 준비 중으로 확인

3. 조치내용

- 우선구매권 행사 지연 관련 산업부 및 석유공사 관련자에 대해 “주의” 조치, 매뉴얼 현행화를 미실시한 석유공사와 산업부 소관부서에 “경고” 조치
- 우선구매권 행사 관련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 중인 재난 매뉴얼을 개선하도록 “통보”(산업부/석유공사)
- 국제공동비축유 관련 계약사가 국외 판매 계획이 있는 경우, 석유공사에 사전 통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“통보”(석유공사)